

담양골에 대나무 악기 선을 울려 퍼진다

1인 1대나무악기' 특화교육
18개교 참가페스티벌 열고
중학생 오케스트라단 창단
노인 등 연주자 1000명 육성
북·장구·파이프 오르간 제작
내년 세계 대나무박람회 전시



대형 대나무 북(왼쪽)과 담양군이 제작중인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실제모델(필리핀 성 요셉성당 소재).

내년에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는 담양군이 대나무를 재료로 한 악기제작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1인 1대나무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나무악기 페스티벌'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대나무악기 연주자를 양성하고,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단'도 창단했다. 또 박람회 기간 중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대나무 북과 대나무 장구뿐만 아니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도 제작해 화제다. <대나무 악기 연주자 1000명 양성> 담양군은 지난 5일 담양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초등부 14개교와 중등부 4개교 등 총 18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나무악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경연결과 용면초와 고서중이 각각 초등부와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장평초와 금성중이 우수상을, 수북초와 금성초가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군은 관현악과 대나무 악기가 함께하는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단',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 운영과 함께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담양 군민이라면 누구나 대피리를 불 수 있다'는 추진 목표를 두고 창조적 역사사업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5억원을 들여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교육'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했다. 담양중과 담양여중생 100명으로 구성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단'은 매주 두 차례 편곡된 곡을 연습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꾸려진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 50개팀(학교 30팀, 공공기관 10팀, 평생학습기관 10팀)도 매주 시간을 정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기관에서는 대나무악기 연주자 1000명의 양성을 목표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연주자를 확대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월과 10월에 각 대

나무악기 연주 관련 사업들의 운영실태 및 교육성과를 점검해 악기 연주에 자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1000여 명의 오케스트라단과 합주단은 내년 박람회와 2015 세계 대나무협회(WBC) 총회에서 유럽 국영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음색은?> 담양군은 대나무를 활용한 악기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1대(벽면 부착식 높이 4.6m×폭 2.6m)와 체형용 소형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2대를 필리핀 현지에서 제작중이다. 군은 완성후 담양으로 옮겨 조립한후 축적원안 박람회 홍보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대나무 파이프오르간'은 세계에서 유일한 라스파냐스의 성 요셉 성당의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20여년간 관리해 온 필리핀의 디에고 세라(Diego Cera)사를 통해 제작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대나무 악기 전통국가 6개국(중국·대만·일본·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쓰이고 있는 총 54종 152점을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7종 140점을 수입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담양군 향토문화재 제1호 김종혁(46) 명인이 6개월 동안 제작해 지난 6월 '제16회 대나무축제' 기간 중 타북 체험과 함께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어냈던 대형 '대나무 북'(높이·넓이 2m)에 이어 대형 장구(길이 1.8m×지름 1m)를 제작중에 있다. 군은 직접 제작하고 구입한 대나무 악기와 그동안 보관·관리하고 있는 대나무악기를 박람회 기간동안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는 내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축적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화순 국화향연 14만명 찾아 관람객들이 최근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을 찾아 만개한 국화꽃밭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축제 기간(10월 29~11월 9일)동안 14만여명이 '도심속 국화향연'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순군 제공>

최형식 담양군수 "돈 받은적 없어...억울"

무정면장 구속 관련 회견

담양군 무정면장 오 모 씨가 지난 5일 제3차 뇌물교부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부하직원의 구속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면장 구속 사건으로 가족, 담양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7월 25일께 오 면장이 2000만원을 아내에게 주러 갔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해 돌아갔다는 것이 혐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오 면장은 당시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뇌물공여 의사표

시도 한 사실도 없는데 나와 아내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나. 이번 사건 역시 나와 내가족을 목적으로 계획한 일부 인사들의 음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구속된 오 면장은 지난해 5월 31일 담양군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승진심사에서 승진대상자로 의결돼 1월 6일자로 면장으로 발령했다"며 "민선 3기와 5기에 이어 6기 군수로 일하며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사가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생생히 지켜왔다. 그 결과 금품거래가 없는 가장 깨끗한 인사통제가 우리 군에 정착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성 북하면, 과천시 별양동과 자매결연 경제·문화·교육 등 교류 도·농 상생 발전 협약

민선 6기 장성군이 도·농 교류를 통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장성군 북하면(면장 이선화)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동장 민경중)은 지난 10일 북하면사무소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은 북하면 중평마을 출신으로 현재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이창호 씨 주선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북하면과 별양동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스포츠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등 양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기존의 도·농



이날 협약을 통해 북하면과 별양동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스포츠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등 양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기존의 도·농 직거래 등 단순하고 일회적인 교류를 넘어 도·농상생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자매결연식을 마친 양 지역 대표단은 백양사와 축적산 등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장성군과 친선관계를 돈독히 해 상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교류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김종철 서울대 사범대학장이 지난 7일 화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갖고 있다.

화순군 '평생 교육도시' 조성 행보 나서

협약 맺은 서울대 사범대학장 초청 특별강연

화순군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평생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화순군은 지난 7일 능주면 능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철 서울대 사범대학장(교육 종합연구부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은 지난 9월 화순군과 서울대 사범대학이 '평생교육도시조성'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됐다. 김 사범대학장은 "높은 교육열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전략과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보다 다른 생각과 보다 빠른 변화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인재가 가져야 할 자세들을 몸에 익히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이 이뤄놓은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각을 가진 인재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화순군을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물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2억8천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매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2억8천

010-6832-9700

오피스텔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환인→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11월초 상무지구

최고급 시설로 상무지구
중심 학원가에 오픈합니다!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최고위반 운영

경매 교육후 바로 경매 실전경험으로
수익발생할수 있음!!

경매 교육에서 낙찰, 건축,
리모델링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

한국경매학원(상무점)

010-6670-2600 / 062)382-5500